

가톨릭병원협회의 나아갈 길

日時 : 1984. 10. 27 (土)

場所 : 경주코오론관광호텔

本協會는 지난해 10月 26-27 兩日
경주코오론관광호텔에서 81名의 會員이
參加한 가운데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84年度 가을 세미나를 가
졌다. 이 세미나의 主題發表에 이어 가톨릭의료
기관과 우리 협회의 나아갈 方向을 설정하
기 위한 종합토의가 있었는데 다음은
討論內容을 정리한 것이다.

— 編輯者 註 —



〈討論順〉

司 會 :	김 대 군	신 부	(本 協會長 · 가톨릭 중앙의료원장)
討 議 :	김 학 증	교 수	(本 協會 常任理事 · 가톨릭 醫大 教授)
	엠마프라이싱거		(가톨릭 피부과 의원 원장)
	박 병 원	신 부	(대구 가톨릭병원장)
	하 이 디	수 녀	(원주 가톨릭의원 원장)
	김 현 옥	수 녀	(성가병원장)
	조 심 훈	교 수	(강남성모병원장)
	서 공 석	신 부	(本 協會 副會長 · 메리놀 병원장)
	박 응 휘	교 수	(本 協會 總務部長 ·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이 승 자	수 녀	(대구 파티마병원 간호과장)
	강 윤 철	신 부	(김해 진영성모의원 원장)
	조 영 선	교 수	(산업재해병원장)

司 會 : 어제와 오늘 兩日間에 걸쳐 進行된 本세미나에서 연사들은 主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어제와 오늘과 來日, 즉 우리協會創立 이후 어제까지의 발자취를 回顧하고 오늘의協會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方向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時間에는 우리病院協會의 나아갈 方向을 設定하고 모든 會員病院이 이에 同參함으로써 우리들의 目標인 教會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病院協會가 會員病院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 會員病院이 醫療事業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問題, 建議할 事項 또는協會의 도움이 必要한 事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分野別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癩事業과 癩病院을 運營하는 立場에서 가톨릭피부과의원 엠마프라이싱거 女史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엠 마 : 本人은 救癩事業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고충과 救癩事業의 方向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政府의 나병管理 施行方針은 “나관리사업은 一般保健事業에 統合管理함을 原則으로 한다” 고 規定하고 있고 早速한 統合管理를 위하여 諸般施策을 펴가고 있으나 아직 일부 醫療機關에서는 癩病을 特殊疾病視하여 診療의 忌避 내지는 아예 外面해 버리고 있어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癩病도 무서운 疾病의 하나임

에 틀림이 없었으나 오늘날 醫學의 發展과 主治療藥品의 개발로 나병도 早期發見, 早期治療만 하면 完治할 수 있게 되고 近來에 와서 新患發生이 크게 줄었고 國民의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머지 않은 將來에 나병도 完全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병의 身體的 不具등 後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兄弟들에게 보다 많은 關心을 가져야겠고 特히 가톨릭病院協會의 醫療機關에서는 이들이 一般人들과 함께 診療를 받을 수 있도록 配慮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政府가 追求하는 癩管理事業이 早速히 一般保健事業과 統合管理 되도록 우리 가톨릭病院協會가 선구자적 役割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近 20年間 이곳 大邱에서 救癩事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大手術을 받아야 하거나 나병아닌 專門的 治療를 받아야 할 患者들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癩患者란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入院이 拒否되고 그렇다고 한달에 불과 몇명 안되는 환우들을 위하여 專門醫療人を 모실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實情입니다. 改新敎系統인 東山基督病院과 英國救癩宣敎會 病院으로부터 多少의 惠擇을 받을 수 있었지만 充分하지는 못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大邱가톨릭病院 신부님의 特別하신 배려로 醫療陣을 派遣하여 주셔서 이분들에게 充分한 醫療的 惠擇을 줄 수 있어 매우 多

幸스럽게 생각하면서 가톨릭병원의 醫療陣과 院長 신부님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하루속히 癩患者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診療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希望합니다.

司 會 : 癩患者診療를 위해 病院을 開放해 달라는 要請인데 나환자를 一般患者와 같이 診療할 경우 感染의 우려가 없는지 金學仲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중 : 陰性환자의 경우는 傳染이 안되나 癩菌의 潛伏期가 數年에서 20年이나 되고 또한 특효藥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病으로 알고 모두가 癩患者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問題가 있지요. 우리 성모병원에서는 격리된 場所에 慢性病研究所를 두고 여기서 癩患者診療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원 : 얼마전에 우리 병원에 찾아온 癩患者의 治療要請을 받고 贊反兩論이 있었으나 應急手術을 要하는 患者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治療해 주었습니다.

司 會 : 이 자리에서 一律的으로 癩患者에게 病院을 開放하자는 結論을 내리기는 어려운 問題입니다. 現在 陰性癩患者는 알게 모르게 一般患者에 끼어 診療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傳染의 우려가 있는 陽性患者에 대한 病院開放은 一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問題가 된다고 봅니다.

우선 나병에 대한 一般의 意識을 啓導할 것이고 나환자 治療를 위하여 의료진을 나병원에 派遣하거나 傳染의 危險性을 排除하고 病院에 받아들일 수 있는 可能한 方法을 摸索하도록 힘씀으로써 可能할 수 있다고 봅니다.

癩病院이 나사업가聯合會를 통하여 우리協會에 癩病治療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무엇을 어떻게 協助할 것인가를 要請해 오면 해당病院에 通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完全하게 萬足한 意見을 나누지 못하였으나 나사업관계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은 結核患者 治療를 맡아 보시는 原州가톨릭의원 하이디 修女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이디 : 原州에 結核病院을 開設한지 3年이 됩니다. 1980年에 발표된 전국 結核患者有病率은 2.5%로 結核患者數는 95萬名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保健所에 登錄된 患者數만도 全體의 12%

입니다. 강원도지역내도 적지않은 結核환자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原州에서 遠거리에 居住하는 結核환자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保健所와 가톨릭병원에서도 治療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김학중 : 제가 美國移民申請者의 健康診斷結果를 조사해 보았는데 約 3%가 結核患者이고 이中 10%가 陽性患者였습니다. 이들 陽性患者는 藥服用을 中斷한 사람들입니다. 結核治療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充分한 기간을 두고 藥을 계속 服用하는 것입니다. 美國에서는 1年半 내지 2年間 계속 藥을 服用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再發하게 되므로 人내심을 가지고 藥의 服用을 계속해야 합니다.

司 會 : 감사합니다. 結核치료에 있어서는 特別한 問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大學附屬病院의 立場에서 성가병원장 김현옥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옥 : 모든 病院職員이 하나가 되어 크리스찬 정신으로 親切奉仕하여 사랑을 實踐하는 것이 福音의 참 뜻을 傳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톨릭병원 職員은 내가 먼저 親切奉仕를 實踐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나 病院을 찾아오는 모든이에게 크리스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착한 行實을 보고 무엇인가 色다른 것을 發見할 것입니다. 病院運營에 있어서 가톨릭病院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養老院, 保育院과 姊妹結緣을 맺으며 醫療취약 地區인 벽지와 事業場 영세근로자에게 醫療惠澤을 베푸는 일이 病院과 教職員間의 理解增進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機能面에 있어서 醫療器具와 醫藥品에 대한 情報提供, 購買알선, 그리고 共同구매등을 病院協會에서 도와주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司 會 : 역시 같은 立場에 있는 大學附屬病院인 江南성모병원 조성훈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 問題에 대한 討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훈 : 江南성모병원은 大學病院으로서 診療外에 教育·研究등 두가지 일을 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병원이 많이 成長했고 病床數도 增加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 病院에 찾아온 患者들이 “가톨릭병원에서 가톨릭 냄새가 나지 않는다. 神父·修女의 服裝만이 一

般病院과 다를 뿐이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醫療人으로서 患者들을 위하여 主님의 사랑을 實踐하는데 좀더 獻身의이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重復되는 問題는 省略하겠습니다.

첫째, 病院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訓練입니다. 저의 病院에는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助産員, X-선사, 齒科技工士등 7개 教育課程이 있습니다. 이러한 課程을 病院協會를 통하여 醫療技士를 비롯한 看護員등에 대한 教育訓練을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한 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醫療裝備補修問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導入된 醫療裝備가 補修가 안되어 活用하지 못하고 있는 問題입니다. 우리나라 商事들은 일단 導入만 하면 그만이고 얼마간 期間이 지난후 所在不明이 되거나 商道義觀念이 없는 商事로부터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共同 買斷이나 共同구매를 통하여 이러한 보수문제도 解決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司 會 :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가운데에서 理念的인 問題에 있어서 성가병원의 경우 病院運營에서 나오는 黑字를 養老院이나 保育院, 그리고 企業體근로자에게 醫療惠擇을 베푸는데 많이 使用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教職員들이 病院當局에 대한 理解와 協助가 원만하게 이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江南성모병원의 경우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 하는 外部사람들의 농담섞인 말과 가톨릭병원이라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理念的인 문제는 비단 附屬病院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各 病院은 나름대로 각기 運營方針에 따라서 利益金이라 할까, 黑字를 關心있는 事業에 또 關心있는 分野에 再投資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一律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가톨릭병원다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톨릭병원답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答답한 問題입니다. 神父로서, 修女로서 혹은 醫療人으로서 病院에 從事하면서도 具體的으로 病院의 實質的인 診療·看護 혹은 運營의

側面에서 정말 가톨릭병원다운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 理念的인 問題에 대해서 서공석 신부님, 좀 具體的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서공석 : 우리 메리놀병원에서는 年初에 重要스탈들이 밖에서 2泊3日의 연수회를 통해서 가톨릭병원으로서의 奉事目標에 대하여 討論하고 目標을 設定하고 이를 實踐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司 會 : 가톨릭的인 要素 卽, 理念的인 問題에 대하여는 다음 機會에 또 論議하기로 하고 기능적인 面에서 醫療裝備導入, 藥品購入, 裝備補修問題 그리고 從事者의 教育問題를 協會가 主動이 되어 會員病院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意見이 있었는데 이 問題에 대하여 金學仲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중 : 우리 가톨릭中央醫療院은 藥品購入에 있어서 病院藥事審議委員會와 中央약사심의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좋은 藥을 싼 單價로 共同구매하여 같이 使用하고 있습니다. 會員病院들도 協會를 통하여 必要한 藥을 같은 單價로 購買하여 會社에서 直接納品받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司 會 :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톨릭중앙의 료원 직할병원에서는 各病院 必要藥品의 品目を 모아서 全量을 한개 회사에서 구매하여 單價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一部病院에서 病院固有의 權利를 中央에서 뺏지 말고 병원별 구매方法으로 환원하라고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共同購買가 合理的으로 이루어 진다면 藥品 구매 뿐만 아니라 各種 裝備나 消耗品까지도 擴大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성모병원에서는 모든 品目を 코드化하여 電算化作業을 進行中인데 이 作業이 마무리되고 施行課程에서 問題點이 補完되어 本軌道에 올라서게 되면 會員病院에게까지도 擴大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共同구매의 경우 一般的으로 싼 單價로 구매가 可能하나 全 品目 모두 싼 값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理解와 協助가 없을 때에 問題가 되겠습니다.

서공석 : 지금 말씀대로 協會를 통한 共同구매는 여러가지로 不便하고 어려운 問題가 있으므로 시행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첫 단계로서 協會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값싸게 신용있는 회사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情報과 資料를 會員病院에 提供해 주는 일입니다.

박응휘 : 會員病院이 醫療裝備를 구입할때에 信用있는 會社로부터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情報교환센터같은 것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자회로를 사용한 醫療裝備의 구입에 있어서는 最終 使用者가 그 用途와 操作方法을 充分히 알아야 합니다. 性能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情報가 必要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교육 내지는 실지 사용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수련제도를 公동으로 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司 會 : 우리 協會가 情報센터의 役割을 하려면 여러 會員病院이 계약前에 物품의 性能, 用途와 계약의 內容등에 대한 情報를 自發的으로 協會에 제공해 주도록 協助하고 協會는 綜合된 情報를 定期的으로 통보해 주도록 하는 方案을 研究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大邱파티마병원 이승자 수녀님께서 一般綜合病院의 立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승자 : 그리스도 탄생의 초기 기독교시대에 열심한 信徒들에 의하여 福音정신에 입각한 환자간호가 시작되어 中世紀까지 활발하게 展開되었으나 産業革命이후 社會經濟面의 發展과 날로 증가하는 의료사업의 팽배로 病院行政과 管理는 세분화되고 기계화되어 감에 따라 看護는 職業化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간호는 오늘의 科學을 利用하고 應用하면서 同時에 福音정신에 立脚한 奉仕的 간호를 復活시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적 사랑에 의거한 全人看護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司 會 : 全人看護로서 教會性을 부각시켜 가톨릭병원의 理念을 실천하는 일은 기능적인 문제보다 더 보람을 찾는 일로서 이러한 일을 만족하게 해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 기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論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원병원으로서 協會에 提言할 말씀 또는 問題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강윤철 : 醫師子인난으로 病院運營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醫師수급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중 : 20年前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연

평도, 백련도, 삼척등 도서, 벽지 무의지역등 30여 군데에 수련의를 배치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턴 배출수는 1,200명인데 수요인원은 1,600명으로 約 400명이 不足하고 이러한 관계로 當局의 配置計劃에 따르기 때문에 派遣要請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醫科大學의 增設과 軍醫官召集人員의 減少로 4~5年後에는 修練醫求人難이 完全히 解決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司 會 : 성분도병원에서는 修練醫確保難으로 病院經營에 壓迫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一般綜合病院에서는 修練醫確保가 가장 어려운 問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問題의 解決은 家庭醫學科 수련의를 확보하여 訓練시켜 活用하는 方案입니다. 來年부터 醫大에 보드制로 家庭醫學科가 新設되는데 一般綜合病院에서도 家庭醫學科 수련의를 訓練시킬 수 있는 스태프만 확보된다면 自體에서 訓練시켜 活用하면 이 問題가 解決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產災患者診療 問題로 一般綜合病院에서도 이를 取扱하기 때문에 共感이 가는 問題라고 봅니다. 산재병원장 조영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같이 論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선 : 事業場근로자의 健康유지를 위한 건강진단과 職業病의 診療 및 再活에 관한 연구를 目的으로 1971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產災病院이 設立되었습니다. 우리병원에 入院한 患者는 일반적으로 어렵게 사는 노동자로서 工事場에서 심한 負傷을 당하거나 事業場에서 나쁜 有害因子에 의하여 一生을 不具로 지내야 하는 珪肺患者 그리고 工業中毒을 비롯한 職業病의 診斷 治療를 받고 있으며 社會事業家를 常駐시켜 患者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를 相談 解決해 주고 있으며 長期入院患者들을 위해, 서예·바둑등 여러가지 娛樂과 趣味生活등을 指導하고 있습니다. 또한 政府의 產災保險法의 適用에 따른 職業病과 業務上 傷病등의 諮問役割도 하고 있습니다.

司 會 : 가난한 근로자들의 健康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일에 關心을 가지는 일은 重要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再活問題, 院牧活動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 산재병원 專門家들이 職業病과 産業災害에 대한 權威가 높이 認定되어

國內의 모든 産災관계를 指導하고 있습니다. 여러 會員病院에서 산재환자를 取扱하다가 보상문제, 장애문제 判定등에 도움이 必要할 때에는 산재병원에 支援을 要請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時間關係로 우리들의 關心事가 充分히 討論되지 못한 줄로 압니다. 結論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協會란 한두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構成員인 여러 會員모두가 같이 參

與함으로써 오늘 論議한 여러가지 問題가 解決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協會가 發展하는데 있어서 첫째, 문제가 무엇이나 둘째, 어떤 方向으로 進路를 두어야 할 것인가 셋째, 責任을 맡은 이들이 좀 더 意慾을 가지고 使命感을 느껴야 하겠다는 側面에서 나름대로 얻은 成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간 생 명〉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잉태의 그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가) 낙태는 인간 생명의 근본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다.

나)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태아에 대한 여하한 실험 조작이나 이용을 배제한다.

다) 인간의 유전 자산에 대한 모든 개입은, 비정상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육체적 통합성에 대한 침해이며 가정의 선택에 상반된다.

라) 모든 어린이들은 출생 전후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 어머니들 또한 임신 기간과 출산 후 상당 기간 동안 특별히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마) 모든 어린이들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자신의 전인적 발전을 위하여 사회의 보호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바) 부모와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나 고아들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양육이나 입양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혹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자녀로 맞아들이는 적절한 가정들을 후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동시에 부모들의 전부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 어린이 장애자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인간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황청제정 '가정권리헌장' 중에서〉